

배영중학교 고등학교

이 정진 중학교장선생님

이 진희 고등학교장선생님 귀하

안녕하십니까?

초춘의 이때 이정진교장선생님, 이진희교장선생님을 비롯한 배영중고등학교 여러분께서는 더욱 더 건승하리라 사료됩니다.

금학년도부터 竹川 威 [다케카와 타케시] 이사장, 교장선생님께서 이사장직을 전념하게 되시고, 저 平野 克也 [히라노 카쓰야] 가 야치요소인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으로 취임하게 됐습니다.

지난해는 유감스럽게도 종지가 된 상호방문이었지만 올해는 꼭 실현하기 위해 금학년도도 이제까지와 같이 학생 모집을 다그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귀교 방문 일정을 8월 1일 (수) 일본을 출국하고 서울시내에서 1박한 후 8월 2일 (목) 오후 3시30분쯤에 정읍에 도착할 수 있도록 여행사와 짜고 있습니다.

정읍시에서 3일 동안 지내고 8월 5일(일) 오전 9시쯤에 정읍시를 출발할 겁니다. 그후 버스로 서울에 올라가 8월 7일(화)에 귀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의 일정으로 괜찮으시면 4월 하순부터 참가자 모집을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방한인솔교사는 중학교 1학년 부주임이고 국어과교사(고등학교 문예부 동아리 지도 교사)인 久保原 玲奈 [구보하라 레이나] 선생님과 중학교 3학년 수학과교사(중·고등학교 합창부 동아리 지도 교사)인 藤井 平馬 [후지이 헤이마] 선생님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외 통역을 겸임하는 여행사 직원(여자 사원)이 동행하겠습니다.

또한 연말에 귀교방일 일정을 예년대로 12월 23일(일)에 본교방문, 26일(수)에 본교에서 출발하시고 27일 (목)에 귀국하실 일정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올해 연말 방일시 일정도 함께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될이기 합니다만 여러분들의 활약과 배영중고등학교의 무궁무진한 발전과 더불어 양국과 양교의 친선관계가 더욱 더 깊어질 것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2018년 4월 14일 (목)

야치요소인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

平野 克也 [히라노 카쓰야]